

단독후보 출마에도 갈등 치달는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

(신문선 후보)

사커 토크

신문선 후보, 현대가-비현대가 대결 규정 철폐 시 수익금 조정 공약도 갈등의 소지
대의원 23명 중 최소 12표 확보가 관건
일각선 '축구계 갈등 선거 이용' 지적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1대 총재 선거가 단독후보 출마에도 불구하고 통합보다는 분열 양상으로 전개돼 우려를 사고 있다. 프로축구계의 뿌리 깊은 반목구조와 불신풍토가 신문선(59) 후보의 선거전략과 맞물리면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총재 선거가 오히려 갈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가 홀로 출마한 가운데 16일 열리는 2017년 연맹 정기총회에서 찬반 투표 형태로 치러진다. 신 후보는 대의원 23명(K리그 구단 대표 21명+대한축구협회 2명)의 투표로 진행될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신입 총재로 선출된다. 대의원 전원 참석을 가정하면 최소 12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프로축구계에는 '범현대가'와 '비현대가'의 대립구도가 형성돼왔다. 전북현대, 울산현대, 부산 아이파크 등 범현대계열 3개 구단과 나머지 구단들이 경쟁하는 구도다. 신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5표는 내주고 시



신문선 후보

작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연맹이나(대한축구협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도민구단과 이외의 기업구단은 실제로 환영일색"이라고 주장했다. 범현대가인 정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2표와 전북, 울산, 부산 등 3개 구단의 표는 사실상 포기하면서 선거구도를 '범현대가와 비현대가의 대결'로 규정하는 것이다.

신 후보가 도시민구단과 챌린지(2부리그) 구단의 재정안정성을 내세워 수익금(광고사 용료) 배분 정책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클래식(1부리그) 구단과 챌린지 구단, 기업구단과 도시민구단의 갈등을 촉발하고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클래식 구단은 챌린지 구단에 비해 연간회비를 3배 이상 더 내고, 분배금도 3배 가까이 더 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시민구단과 챌린지 구단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한 추가 자원 마련 대책 없이 기존 클래식과 기업구단에 가던 금액을 줄여 챌린지와 도시민구단에 더 준다면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A구단 관계자는 "클래식 소속 구단은 챌린지 소속 구단에 비해 3배(클래식 연간 1억

5000만원·챌린지 연간 5000만원)이 많은 연간회비를 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클래식 구단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계권료나 타이틀 스폰서 수익 등이 대부분 클래식을 통해 형성됨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이다"고 지적했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는 "신 후보가 도시민구단과 챌린지 구단을 중심으로 득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12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신 후보로서 현실적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축구계의 갈등구조를 선거에 이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씁쓸하다"며 "신 후보의 당선 여부와 별개로 프로축구계가 이번 선거를 통해 큰 상처를 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광주FC 남기일 감독(오른쪽)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2016년 세계축구계를 이끈 거물과 만났다. 포르투갈에 유로 2016 우승을 안긴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산투스 감독은 남 감독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사진제공 | 광주FC

산투스 만난 남기일감독 무슨 조언을 들었을까요

포르투갈 전훈지 답사 중 뜻밖에 만남

K리그 사령탑들은 대개 시즌이 끝나면 선수단 재소집과 동계훈련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유럽과 남미 등지를 찾곤 한다. 당연히 선호지역도 제각각이다. 이 가운데 클래식(1부리그) 광주FC 남기일(43) 감독은 '포르투갈 마니아'다.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포르투갈을 찾았다. 방문 목적은 분명했다. ▲전지훈련지 사전답사 ▲외국인 선수 후보 물색 등이다. 2017시즌에 대비해 3월부터 전남 광양에 1차 캠프를 차린 광주 선수단은 16일 포르투갈 알가브로 이동해 2차 훈련을 진행한다. 알가브에서 오다(일본), 본즈(니제르) 등 미리 선발한 2명 외의 나머지 외국인선수 쿼터를 채울 후보를 직접 테스트해 선발할 계획이다.

그런데 남 감독은 지난 시즌 직후 포르투갈 방문 때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포르투갈 대표팀을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으로 이끈 페르난도 산투스(64) 감독이었다. 조국에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안긴 산투스 감독은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더 베스트 국제축구연맹(FIFA) 풋볼 어워드 2016' 감독상 수상 후보로 올랐다. 비록 수상의 영예는 레스터시티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으로 만든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에게 돌아갔지만, 산투스 감독이 남 감독에게 직접 조언을 건넸다.

그리 길지 않은 티타임 동안 산투스 감독은 2년 연속 마주한 남 감독을 살갑게 대하며 여러 조언을 건넸다. 세계축구의 판도와 흐름, 포르투갈과 아시아, 또 K리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10일 광양 캠프에서 만난 남 감독은 "2년째 방문하며 점점 포르투갈의 매력을 실감하고 있다. 산투스 감독을 비롯한 명망 높은 축구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축구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것이 남 감독의 설명이다.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등과 견줘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남 감독은 "유럽의 골키퍼, 아르티카와 남미에서도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지구촌 곳곳에서 훌륭한 선수들이(포르투갈에) 모여든다. 우리 선수들도 조만간 시작될 포르투갈 전훈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 | 남정현 기자



리즈 유나이티드 켈빈 필립스(왼쪽)와 케임브리지 코너 뉴턴(오른쪽)이 10일(한국시간) 캄스글래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경기 도중 치열하게 볼을 다투고 있다. 케임브리지(영국) | AP뉴스

'파타야 기적' 일군 임종현 감독, 中 리지앙서 새 도전

사커 피플

2부리그 첫 승격 리지앙서 3년간 지휘봉
1차 목표 잔류...한국선수 2명 영입 계획

"또 한 번의 감동과 기적을 일구고 싶다!" 중국프로축구 갑(甲·2부)리그 리지앙 자원하오 지휘봉을 잡은 한국인 사령탑 임종현(51) 감독의 야심 찬 포부다. 리지앙은 8일 임 감독의 선임에 공식화했다. 첫 접촉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발표였다. 계약기간은 3년. 지난 시즌 리지앙은 을(乙·3부)리그 우승으로 2012년 창단 이후 처음 갑리그로 승격됐다. 임 감독의 합류로 중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사령탑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갑리그에는 홍명보(48) 항저우 그린타운 감독도 있다.

중국 원난성 해발 2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리지앙은 오래된 도시다.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리지앙의 고대마을은 유네스코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을리그를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도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지난해의 성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리지앙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았다. 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 변화를 택했다. 전혀 새로운 형태로, 사실상의 재창단이 이뤄졌다. 기업구단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형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했다. 큰 폭의 물갈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 과정에서 새 사령탑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후보군 물색 단계에서부터 한국 지도자가 대상이었다. 아마추어는 물론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검증된' 임 감독이 리지앙 수뇌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다만 변수가 있었다. 시민구단으로 변하는 절차를 밟느라 선임이 계속 미뤄졌다. 꽤 오래 전부



중국프로축구 2부리그 리지앙 자원하오는 8일 임종현 감독(왼쪽)의 선임에 공식화했다. 임 감독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사진출처 | 시나닷컴

터 리지앙과 접촉한 임 감독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것도 지난 5일에서였다. 급히 중국으로 떠나 계약서에 사인한 임 감독은 9일부터 곧장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협상과정)은 길었지만 결정과 타결은 속전속결이었다."

리지앙이 높이 평가한 부분은 임 감독의 태국 시절 경력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이룬 아주 소중한 기억이다. 2015년 4월 임 감독은 태국프로축구 디비전1(2부) 파타야 유나이티드로 향했다. 세계적 휴양도시의 대표 클럽임에도 환경과 인프라, 처우는 최악이었다. 임금체불도 동반사였다. 선수들의 행동과 의식도 '프로'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8개월 후 기적이 연출됐다. 파타야는 정규리그 2위로 프리미어리그(1부) 승격에 성공했다. 임 감독의 해법은 '초심'과 '기분'이었다. 철저한 눈높이 훈련과 따뜻한 한 끼 식사, 진심 어린 스킨십으로 선수들을 추켜세웠다. "2015년

태국 올해의 감독상'도 그의 몫이었다.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던 그는 파타야를 떠나 1년의 아인생활을 보냈어도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리지앙은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임 감독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

물론 파타야와 리지앙은 다르다. 리지앙은 쾌적하고 번듯한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선수단 전력도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 당장 슈퍼리그(1부) 승격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런저런 그라운드 외적 변수만 없다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당연히 1차 목표는 잔류다. 올해 내성을 키운 뒤 착실히 힘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면 내년, 내후년에는 최고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리지앙은 2명의 한국선수를 데려가려고 한다. 전부 즉시전력감이다. 지난 시즌 직후 슈퍼리그 예벤투의 하대군(30) 영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축구에 대해 관심이 크고, 배움에 적극적이다. 실연 직후 동계전지훈련도 한국에서 한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파타야에서 깼다. 갑리그 도전부터 슈퍼리그 잔류까지 지난 2년간 박태하(49) 감독의 예벤투가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임종현 감독

▲생년월일=1966년 3월 8일 ▲출신교=부평동중~부평고~고려대 ▲프로선수 경력=일화천마(1989~1993년), 울산현대(1994~1996년) ▲지도자 경력=부평고 코치(1997~1999년), 고려대 코치(2000~2001년), 울산현대 코치(2004~2008년, 2013~2014년), 파타야 유나이티드 감독(2015년), 리지앙 자원하오 감독(현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더 베스트 풋볼 어워드 2016'에서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취리히(스위스) | 뉴스

호날두, 두 번 웃었다

발롱도르 이어 FIFA 올해의 선수상
"2016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에게 2016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호날두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더 베스트 풋볼 어워드 2016'에서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수상하며 2016년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각인시켰다. 지난 달 프랑스풋볼이 수여한 '발롱도르' 수상에 이는 결정사다.

FIFA 올해의 선수상은 발롱도르와 더불어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2010년부터 FIFA는 프랑스풋볼과 계약해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2016년부터 다시 독자 시상식으로 돌아섰다. 수상자는 FIFA 회원국 대표팀 주장(25%), 감독(25%), 기자단(25%), 대중(25%·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투표에서 호날두는 34.54%의 득표율로 26.42%에 그친 라이벌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 7.53%의 앙투안 그리즈만(26·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을 제치고 2016년 최고 선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6골을 터트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정상 등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도 조국 포르투갈의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에 기여하는 등 A매치 13골을 기록했다.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호날두는 "(2016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포르투갈의 (유로2016) 우승은 굉장했다. 챔피언스리그와 클럽월드컵도 잊지 못한다. 팀과 함께 많은 트로피를 수확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밝게 웃었다.

여자선수상은 미국의 칼리 로이드(35·휴스턴)에게 돌아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남자감독상은 레스터시티(잉글랜드) 클라우디오 라니에리(66·이탈리아)가 수상했다. 라니에리 감독은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여자감독상은 독일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실비아 나이트(53·독일)가 차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도훈 기자 bong82@donga.com